

# 동아일보(1993.4.10)

東亞日報

1993年4月10日

土曜日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칩 개발

고성능 컴퓨터 핵심부품  
트랜지스터 14萬개 집적

## 延世大 반도체研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이 국내연구진에 의해 처음 개발됐다.

연세대 주문형반도체 설계공동연구소는 9일 워크스테이션과 고성능 개인용 컴퓨터(PC) 레이저프린터, 공장자동화 시스템 등의 두뇌역할을 하는 명령어축소(RISC) 마이크로프로세서(사진)와 전용림파일러를 3년간 연구 끝에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마이크로프로세서제품의 일부 국산화가 기대된다.

지난해 국내 마이크로프로세서시장은 4억1천만달러에 달했다.

90년 7월부터 상공부 공업기반기술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된「연세스파크리스크」칩은 가로세로 각각 9mm크기에 트랜지스터 14만개를 집적한 것으로 세계 워크스테이션 시장의 60%이상을 차지하고있는 미국 선마이크로시스템즈의 스파크칩과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에 달한 메모리칩과는 달리 마이크로프로세서 국내기술 수준은 8비트제품을 겨우 개발한 단계인데 이번 개발로 16비트를 건너뛰어 32비트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연구팀장李文基교수는「칩의 처리속도가 20Mbps(초당 1백만 명령어처리)로 선진국의 첨단제품과는 2년정도 격차가 있지만 시장규모가 크고 현재 반도체장비로도 충분히 제조가능해 오히려 시장성이 있다」고 말했다.